



### 히말라야 도서관 존 우드 지음|이명혜 옮김|세종서적 펴냄|1만원

## 한 권의 책 수 백만 달러 가치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사 중국지사 이사이자 국제시장 전문가인 우드 씨는 매일 엄청난 양의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탈출구로 입사 7년 만에 네팔 트레킹이라는 휴가를 선택했다. 그곳에서 본 네팔 학교는 그에게 충격이었다. 선생님들은 "책을 좀 가져다 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는 계기가 됐다.

그는 책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사들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메일을 통해 친구들에게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차고가 딱 잘 정도로 배달돼 온 3000권의 책을 갖고 그는 이듬해 그 학교를 다시 방문했다. 네팔 어린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자선단체 '룸투리드(Room to Read)'를 설립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네팔 인도 베트남의 오지에 도서관 3000곳을 지었고 150만 권 이상의 책을 기증했다. 200곳 이상의 학교도 지었다. 단 한 권의 책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주는 것이 수백만 달러의 원도스를 파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세계의 오지마을과 개발대상국가에 책을 전하고 도서관과 학교를 짓는 단체인 '룸투리드'의 이야기를 옮긴 것이다.

우드 씨는 이 책에서 책 기증 운동에 뛰어들어 이후 변화한 삶을 담담히 돌아본다. 그가 처음 책을 모아 학교에 전달했을 때 감사 인사는 "당신은 대단한 것을 선물했는데 우린 담배로 드릴 것이 거의 없군요"였다. 우드 씨는 목이 메었다. 자신이 작게나마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감정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고 회고한다.

자선운동을 시작한 지 5년 만인 2004년, 바쁜 일정에 지친 우드 씨는 다시 휴가를 꿈꿨다. 그러나 바로 그때,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덮쳤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룸투리드를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김주일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절을 기차에 걸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음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다이어
4	공부하다 죽어라	현각 외	조화로운 삶
5	사할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6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7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8	무비스님의 천수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9	부루나의 노래	법현	운주사
10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푸른 화두를 마시다

이근수 지음|문학동네 펴냄|1만원

## 산사이야기 등 풍성한 읽을거리

저명한 회계전문가이자 '차인'으로 국내 외에 한국 차문화에 알리는 역할을 해 온 이근수 교수(경희대 회계학과)는 1990년대 이후 무용 평론과 차(茶)에 관한 글을 꾸준히 써왔다.

이번에 펴낸 산문집에서는 숨겨진 차의 명소를 탐방하는 산사 여행기, 올바른 차문화에 대한 고민과 성찰, 정겨운 차인들과의 인연 등을 풍성하게 풀어냈다.

이 교수는 "거창한 불사가 있고 주말마다 관광객을 그득 실은 버스가 들락거리는 유명한 사찰보다는 호젓한 곳에 숨어 인적이 드물고 세속의 때가 덜 탄 곳을 주로 찾는다"고 말한다.

1부에서는 차를 즐기는 산사의 스님들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2부에서는 미국 교환교수 시절 스타벅스 커피방으로 넘쳐나는 뉴욕 거리에서도 한국의 차향을 그리워하는 저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뉴욕 발 칼럼을 실었다. 또한 3부에서는 차 문화가 한류문화의 뿌리라고 주장하면서 동북아 중심의 '녹차문화권'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김주일 기자

### 틱낫한의 포용 틱낫한 지음|김형민 옮김|현문미디어 펴냄|1만2000원

## 마음의 평화 얻는 지혜 담은 말 가득

"당신은 마음을 집중해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일에 성급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물을 보다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틱낫한의 포용> 중에서

좋은 말이고 살아가면서 절실히 필요한 말이다. 하지만 생각처럼 실천이 잘 안되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사유하다보면 어느새 자꾸 따라가게 될 것 같다. 마음의 평화를 주기 때문이다.

명상운동가인 틱낫한(82) 스님이 최근 펴낸 <포용>을 펼쳐면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 지혜를 담은 말들이 가득하다.

틱낫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경쟁 사회에서 마음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찾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말한다. 책은 매주 한가지씩, 예를 들면 '살과의 약속을 어기지 마십시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살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등 53가지의 화두를 던지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스님은 현대인이 대부분 시달리고 있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몸이 아프고 근육이 긴장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쉬는 방법을 잊어 버렸기 때문이다. 긴장을 풀 만큼 진정한 휴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대신 몸의 긴장을 풀어준다면 우리의 치유능력은 스스로 발전할 것입니다."

스님은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을 때에는 그냥 누워 들어주고 내쉬는 당신의 호흡을 즐기라"며 "따뜻한 침대에 조용히 누워 지금 이 순간을 향유하면서 당신의 호흡을 즐기는 상태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잠이 들 것"이라는 처방을 내렸다.

생각에 빠져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스님은 또 "집중하고 통찰할 수 있을 때 생각은 아주 생산적인 힘을 발휘 한다"며 "호흡을 집중하면 거센 생각의 폭풍이 멈출 것"이라고 조언한다.

지난해 4월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마음속 깊이 의무감을 느껴야 합니다. 보다 나은 미래는 우리가 '지금 여기'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행복은 결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라고. 고개가 끄덕여 진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이 그렇고, 국보 1호 승례문 방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특별히 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내일을 살아 갈 수 있는 건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 아닐까?

짧지만 강렬하고 주옥같은 스님의 메시지는 하루하루의 번뇌와 불안, 고민을 치유해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는 감로 법문이다. 김주일 기자

### 초씨역림

조연수 지음|최해성 역음|신자평 펴냄|2만5000원

## 상수학 역사 이해하기 쉽게

<초씨역림>은 중국 전한말에 조연수가 찬술한 최고의 상수학 역사이다. 춘추시대 이래 발전을 거듭한 상수학의 모든 이치를 총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후세에 상수학의 모든 기틀을 활짝 열어 놓았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책이 국내에 널리 소개 되지 않은 이유는 은밀하게만 전수되던 비서(秘書)였기 때문이다.

이 책은 4,096의 과사를 상고시대의 경사중에 문장으로 서술해 놓아 내과, 외과, 병과, 호폐 등을 종합 판단하지 않아도 문장만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놓아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김주일 기자

### 유학, 우리 삶의 철학

필립 아이만호 지음|신정근 옮김|동아시아 펴냄|1만5000원

## 자아수양 방법론 소개

동양철학에서 자아 수양은 유학뿐 아니라 불교에서도 깊이 천착하고 있는 문제이다. 저자의 말대로 자아 수양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유학의 전통을 쫓아가다보면 유학의 웅대한 구조를 헤아리기 어렵고 각 사상가들의 사상의 깊이나 특성을 놓칠 수 있다. 반면 그토록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가들을 전통 안에서 꿰뚫으며 그들 철학의 두드러지고 활기 넘치는 특성의 일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국 고대철학을 연구하는 미국인 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2,500년 유학의 역사에서 도덕적 자아 수양의 개념이 어떻게 진화, 발전해왔는지 간명하게 설명해 준다. 하지만 개별 철학자들의 사상을 추상적으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지적 풍토에서 자신들의 독특한 자아 수양 개념을 완성하게 됐는지 추적한다. 예컨대 맹자는 목자와 양주학파의 공격을 받아 공자의 학설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이외에도 저자는 이 책에서 유학사에 족적을 남긴 공자, 순자, 주희, 왕양명, 안연, 대진 등이 펼친 자아수양 방법론을 소개했다. 김주일 기자

#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신선이 응호할 것이며, 성증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절찬리 판매중  
12쇄 발행 !!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존평의 신기원율 연 마스터피스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尊評"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보정판 4쇄  
508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 할까..... 나는 이제 현자사 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법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http://www.hyunjisa.or.kr | 판매처 |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 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본원 Tel 051)554-5150